

기고



윤신근 수의사·동물학박사 한국동물보호연구회장

삼성이 만든 또 하나의 반도체, 안내견

지난해 11월29일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시각장애인 안내 훈련견과 피피워커가 마트 매니저에게 입장을 거부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매니저는 심지어 이들을 향해 고성까지 질렀다. 이 과정에서 잔뜩 겁을 먹은 훈련견 모습을 담은 사진이 SNS를 통해 확산하며 논란이 일었다. 11월30일 롯데마트가 공식 사과하고, 앞으로 안내견과 훈련견을 배려하겠다고 알리면서 사건은 일

단락됐다. 이 사건은 한국에서 안내견 인식이 아직도 낙후한 상태였음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사회적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이 외출할 때 길잡이가 돼주고, 위기 상황을 미리 알려 보호하는 개를 말한다. 안내견을 비롯한 장애인 보조견과 훈련견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의거해 대부분 장소(털 알레르기 환자 치료 공간 제외) 출입과 대중교통 탑승 등이 허용된다. 국내 최초 안내견은 1993년 6월

7일 삼성그룹이 개설한 '삼성 안내견 학교'가 이듬해 배출했다. 이후 삼성은 30년 가까이 안내견 보급 사업을 펼쳐왔다. 안내견 한 마리를 양성하는 데 약 3년이라는 시간과 1억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든다. 삼성 안내견 학교는 매년 약 10마리씩 안내견을 길러낸다. 지금까지 164마리가 나와 시각장애인을 도왔고, 지금도 돕고 있다. 금액만으로 160억원 넘게 투입된 셈인데 수많은 시각장애인이 안내견 도움을 받아 사회 각계각층에

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가치는 수백억, 수천억원으로도 대신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반려인으로 잘 알려진 고(故)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의 의지와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당시 기업의 사회 공헌은 수재의 연금, 이웃돕기 성금이 전부였다. 이 회장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한참 동안 외국 반려동물 서적이나 외화에서나 안내견을 보며 부러워하거나 신기해하지 않았을까 싶다.

안내견은 군인 장교처럼 철두철미하게 양성된다. 강아지 때 자질을 평가해 합격하면 자원봉사자인 피피워커에게 위탁돼 약 1년간 사회화 과정을 거친다. 이를 마치고 학교에 돌아오면 다시 엄격한 선발 과정을 통과한 일부분 안내견으로 키워진다. 견종은 '골든 리트리버' '래브라도 리트리버' '스탠더드 푸들', '골든과 램의 혼종인 '골다도'(Golado), 램과 스탠더드 푸들의 혼종인 '래브라도들'(Labradoodle) 등이다. 이들은 영리하고 온순해 안내견 역할을 제대로 해낸다. 길에서 안내견이나 훈련견을 만나면 놀라게 해서도 안 되지만, 과한 애정을 표출하며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것도 금해야 한다. 안내견을 훈련스럽게 할 수 있어서다.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다 그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11일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 로봇 제작사 보스턴 다

이내믹스를 인수했다. 2015년 '로봇 개'로 일컬어지는 소형 상업용 로봇 '스팟'(Spot)을 만든 업체다. 외신에 따르면, 현재 미국, 일본 등에서 개처럼 4족으로 보행하는 스팟을 안내견으로 활용할 방법을 연구 중이다. 정이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통해 그룹이 지향하는 인류 행복과 이동 자유, 한 차원 높은 삶의 경험 가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꼭 스팟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안내견 로봇이 안내견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과 로봇에 탑재될 AI(인공지능) 연구자들에게 간곡히 청하고 싶은 것이 있다. 안내견이 단순히 '길 안내'만 정확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는 말아 달라. 그들은 시각장애인과 늘 함께하면서 맥박과 체온으로 심리적인 안도감, 정서적인 위안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기 바란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 속 청렴, 건강한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기본 자질은 다양하다. 업무적 측면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맡은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함은 물론이고,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 성실함 등 정신적 자세 또한 공무원이 갖춰야할 필수 덕목이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덕목은 바로 '청렴'이다. 공정한 업무수행, 국민에 대한 봉사는 공무원의 청렴이 선행되었을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최근 몇 년간 부패한 공직자의 비위 사건을 수없이

목도해 왔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직자의 부패는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거나 목숨을 앗아가고 심지어 국가적인 분열과 혼란을 야기했다. 국제적인 부패감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 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인 부패지수(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2019년 39위를 기록하여 9년 만에 30위권에 진입하였지만, OECD 36개국과 비교 했을 때는 27위에

그쳐 아직 하위권에 속해 있다.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우리사회에 한층 더 성숙한 청렴문화가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청렴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크다. 청탁금지법 시행, 반부패·청렴 교육 의무이수, 기관별 반부패시책 추진, 각종 청렴 캠페인 등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완비되어있는 지금, 이제는 이를 준수하려는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일선기관에서부터 청렴행정을 통해 청렴 문화가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활 속에 확실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

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1년의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다시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예로부터 명절에는 한해의 무운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왔다. 하지만 순수한 감사의 선물 또한 관계에 따라 금품수수가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부정청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생활 속에서 기본적인 청렴법규를 준수하여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자리에서 먼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본다. 김민식/전남서부보훈지청보훈과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emergency, legal, and social welfare.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address and subscription details.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